

캠벨의 신화 이론으로 분석한 중국의 경극*

- 경극 『패왕별희』를 중심으로 -

조득창, 김덕삼, 최원혁**

<目 次>

1. 서론
2. 경극과 캠벨 신화 이론의 공통점과 차이점
 - 1) 전형성
 - 2) 영웅성
 - 3) 비일상성
3. 캠벨 신화 이론으로 분석한 『패왕별희』와 할리우드 영화
 - 1) 영화 『토르』와 『패왕별희』의 전형성
 - 2) 영화 『카사블랑카』와 『패왕별희』의 영웅성
 - 3) 영화 『미녀와 야수』와 『패왕별희』의 비일상성
4. 결론

1. 서론

경극과 캠벨이론은 현재 동아시아 세계 문화 산업의 양대 코드라 할 수 있다. 한 때 오늘날 할리우드 영화와 게임만큼 인기 있었던 경극은 중국의 부상으로 동아시아 문화의 대표 아이콘으로 중국이 지원하고 있고 캠벨 신화 이론은 오늘날 할리우드 영화 뿐 아니라 게임 산업에서 동아시아에서도 통하는 흥행 공식으로 인정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¹⁾ 반면 경극과 캠벨 신화 이론에 입각한 게임과 영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A2A01014112).

** 조득창: 협성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주저자), 김덕삼: 대진대학교 창의미래인재대학 부교수(교신저자:konglai@naver.com), 최원혁: 대진대학교 대순중학과 강사

화는 그 동안 거의 서로 비교되거나 대조되지 않았다.²⁾ 더욱이 캠벨 신화 이론의 뿌리가 융의 동양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한중일을 통틀어 비교가 드문 것은 매우 의외이다.³⁾ 경극의 흥행을 추구하는 경극 연구에 있어 캠벨의 신화 이론과의 비교는 기존 연구와 달리 형식보다 내용에 중점을 둠으로 경극 흥행의 부활을 위해서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

오늘날 과거 인기의 부활을 꿈꾸는 경극과 동양적 모델로의 확대를 도모하는 캠벨의 신화 이론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다.⁴⁾ 캠벨의 신화 이론은 신화 이론 가운데 현재성을 강조하므로 과거 경극이 가지는 의미를 현재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론이다. 캠벨의 신화 이론으로 경극이 분석되지 않은 것은 경극의 동양성이 가지는 서양과의 괴리감 때문이다. 그러나 동서양의 차이라는 선입관을 제거하면 경극과 캠벨이론은 의외의 공통점을 많이 가지게 된다.⁵⁾

- 1) 경극(京劇)은 중국 전통극 중 하나로, 대극(大劇) 혹은 국극(國劇)이라 불리며 한의학, 중국화와 함께 중국의 3대 국수(國粹)로 여겨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경극의 계승과 발전을 중요시하여 2006년 5월 20일 '국가급비물질문화유산명록(國家級非物質文化遺產名錄)'으로 지정하였고, 2010년 11월 16일에는 유네스코에 의해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지정되며 경극은 명실상부한 세계급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되었다. (허은숙, 「중국 경극 공연의 관객개발 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년, 1-2쪽) 또 스타워즈의 흥행공식이 캠벨의 신화이론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할리우드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늘날 캠벨의 신화이론은 할리우드 영화뿐 아니라 게임 시나리오에 이르기까지 흥행과 관계된 거의 모든 장르의 표준이 되고 있다. (S. 보이탈라 저, 김경식 역, 『영화와 신화』, 을유문화사, 2005년, 9-14쪽)
- 2) 경극의 흥행문제는 경극에 대한 최근 한국 논문의 주요 주제이긴 하지만 아직 오늘날 흥행의 주요공식인 캠벨 이론과의 접목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경극을 캠벨 이론과 연결시키는 것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캠벨 이론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문학 분야에서는 경극과 같은 고전 문학의 발생에 캠벨 이론과 대비될 만한 동아시아 고유의 서사이론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도 매우 드물었다. 경극의 경우 주로 역사적 유래나 사회 상황, 개별 작품, 서양 이론을 통한 서양 희곡과의 비교 연구에 집중되었다. (정선경 외, 「韓國에서의 中國古典劇 研究 現況 및 成果」, 『중국어문학논집』 제68집, 2011년, 389-391쪽)
- 3) 임현수, 「조셉 캠벨의 신화 읽기: 참된 자아를 향한 여정 - 『신화의 세계』(과학세대 옮김, 까치글방)에 대한 서평 -」, 『종교문화연구』 제17집, 1999년, 279-282쪽.
- 4) 중국문학사에서 가장 흥행에 성공한 장르가 경극이었다는 것은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의 지배와 관련이 많다고 한다. 漢族은 전통적으로 시문을 중시했지만 원나라, 청나라가 지배하는 시기에는 지배계층의 민족적 성향으로 인해 연극이 발달했다. (박정희, 「예광친의 『차이장즈』와 베이징」, 『동북아문화연구』 제36집, 2013년, 45-46쪽)
- 5) 서양 문학에서 캠벨 영웅순환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파우스트』는 피테가 중국 성리학의 주역 순환에 입각해서 음양과 사시(四時)의 순환을 보여주기 위해 만든 작품이라고 한

이 글은 먼저 2장에서 경극과 캠벨 신화 이론의 비교를 통해 경극과 캠벨이론이 가지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본 후 3장에서 「패왕별희」와 캠벨의 신화 이론을 적용한 할리우드 영화 「토르」, 「카사블랑카」, 「미녀와 야수」 등과의 비교를 통해 2장의 이론을 적용해보고 4장에서 캠벨의 신화 이론이 경극의 현대화에 전해주는 메시지를 결론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경극과 캠벨의 신화 이론을 간략하게 비교해 보면 경극과 캠벨의 신화 이론이 가지는 순환이라는 공통점은 크게 전형성, 영웅성, 비밀상성이라 할 수 있다.⁶⁾ 입문-시련-귀환이라는 통과의례에서 착안한 캠벨 이론은 영웅서사의 특성도 3가지로 나타난다. 캠벨의 영웅은 입문 단계에서는 전형을 모방하는 전형성을 보이고,⁷⁾ 자신에게 우호적인 조력자와 전령을 만난다. 시련 단계에서는 내면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공감의 영웅성을 보이고,⁸⁾ 적대자가 뚜렷해지고 관문수호자를 만난다. 귀환단계에서는 심연에서 찾은 전리품으로 세상에 새 의례를 제공하여 공헌하려는 창의성을 보이고 트릭스터와 변신자재자를 모두 만난다.⁹⁾ 경극과 할리우드 영화도 각 단계 중 특정 단계와 욕망을 어떻게 강조하느냐에 따라 장르가 구분된다.¹⁰⁾

순환을 중심으로 비교한다면 한 개체가 순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초의 분리를 일으키는 수직성, 수직성을 유지시켜주는 수평성, 수직성과 수평성을 지속하는 입

다. (안중수, 「괴테와 중국철학」, 『철학연구』 제69집, 2012년, 422-423쪽)

- 6) 캠벨의 신화 이론을 통한 한 작가의 작품에서도 또한 세 가지 층위의 중복으로 향유극대화를 도모하는 전략이라고 접근하는 연구도 있다. 전형성과 영웅성, 비밀상성은 서로 대립되지만 영웅 순환의 대칭성이 가지는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여기서 영웅성은 전형성의 보편성과 비밀상성의 차별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박기수, 『『모노노케 히메』의 스토리텔링 전략 연구』, 『인문콘텐츠』 제17집, 2010년, 540-542쪽.
- 7) 영웅은 처음에는 소명을 거절하지만 일단 소명을 받아들이면 쿵푸팬더처럼 선망하는 대상의 욕망을 모방하려 한다. 캠벨은 입문 단계에서 소극적 모방이 아니고 내면의 소리를 듣는 적극적 모방을 한다고 한다. (J. 캠벨 저, 이윤기 역, 『신화의 힘』, 고려원, 1992년, 274쪽)
- 8) 캠벨은 영웅이 시련에서 깨닫는 자비, 곧 공감이 영웅성의 핵심이라고 한다. (J. 캠벨, 『신화의 힘』, 392쪽)
- 9) 오늘날 사람들이 영웅과 신화를 잊었다는 것은 의례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한다. (J. 캠벨, 『신화의 힘』, 173쪽)
- 10) 액션 어드벤처, 로맨스, 판타지 등은 각각 모방, 공감, 창의성을 강조한다. S. 보이틸라, 『영화와 신화』, 을유문화사, 2005년.

체성을 가져야 하기에 수직성은 전형성의 보편성, 입체성은 비일상성의 초월적 차별성, 그리고 영웅성은 전형성의 보편성과 비일상성의 차별성을 조정하는 수평성이라 할 수 있다. 동양의 대표적 윤리체계인 삼강오륜도 수직성, 수평성, 입체성의 순환으로 볼 수 있다.¹¹⁾

먼저 전형성을 살펴보면 캠벨은 세계의 수많은 신화를 원질신화라는 전형화된 틀로 해석하고 있다.¹²⁾ 원질신화는 동양의 12지(支)와 7성(星)처럼 12단계의 순환과 7명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¹³⁾ 경극 또한 수많은 작품이 있지만 배우는 생

-
- 11) 삼강오륜은 주역의 순환을 부자(수직), 부부(수평), 군신(입체)이라는 3개의 축으로 요약하고 있다. 주역은 음양을 구성원리로 하여 순환하는 구조체라고 한다. (최영진, 『역학사상의 철학적 탐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년, 39쪽)
- 12) 조셉 캠벨은 세계의 모든 신화를 조사하고 세계의 모든 신화가 심연을 찾아 떠나는 영웅의 순환이라는 하나의 원질신화로 표현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임운주, 『한·미·일 장편 애니메이션 주인공에서 나타난 영웅 속성 비교연구』, 홍익대학교 박사논문, 2011년, 6-8쪽)
- 13) 『중국의 문학회론』으로 저명한 스탠포드대 유약우(劉若愚)는 중국의 문학회론은 주역의 형이상학으로 대표될 수 있다고 한다. (이세동, 「주역의 문학회론-문(文)·도(道) 관계론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 제30집, 1997년, 1-6쪽) 캠벨의 신화 이론을 할리우드 영화의 시나리오 대본 지침으로 만든 보글러와 보글러의 이론을 실제 영화비평에 적용한 보이틸러는 캠벨의 신화 이론을 12단계의 순환과 7캐릭터로 요약했다. 12단계는 1.보통세상: 관객들이 영웅을 만나고, 영웅의 야망과 한계를 알게 되고, 영웅을 받아들이고 동일시함으로써 영웅과의 유대감을 형성한다. 2. 모험에의 소명: 영웅은 떠밀려서 탐색의 여행에 오르거나, 또는 문제를 해결하라는 도전에 직면한다. 3. 소명의 거부: 영웅은 망설이거나 공포를 드러낸다. 4. 조연자와의 만남: 영웅은 확신, 경험, 지혜의 원천과 접촉한다. 5. 관문 통과: 영웅은 모험을 받아들일겠다고 천명하고 '특별한 세상'으로 들어간다. 6. 시험, 협력자, 적: '특별한 세상'에서는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하도록 영웅을 이끌어주는 상황과 사람들. 7. 접근: 실패하고 좌절한 세력들 또는 죽음의 세력들과 맞서 싸우게 되는, 핵심이 되는 전투를 준비하는 단계. 8. 시련: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 되는 위기로 영웅이 최대의 공포와 맞서고 죽음을 맞본다. 9. 보상: 영웅이 다시 태어나서, 공포와 죽음을 극복한 데에 대한 보상을 만끽하는 순간이다. 10. 귀환: 영웅은 모험이 끝났음을 천명하고 '특별한 세상'을 떠나거나, '특별한 세상'에서 벗어나려다가 추격을 당한다. 11. 부활: 고향으로 돌아오는 관문에서 영웅을 정화하고 속죄와 변신을 겪게 하는 클라이맥스를 이루는 시험. 12. 묘약과의 귀환: 영웅이 귀환하여 그가 여정에서 얻은 것을 나누고, 이로써 친구들과 가족, 공동체 그리고 세계가 득을 본다. 7캐릭터는 1. 영웅: '봉사하고 희생한다.' 2. 조연자: '이끌어준다.' 3. 관문수호자: '시험한다.' 4. 전령: '경고하고 자극을 준다.' 5. 변신자재자(變身自在者): '의의를 제기하고 속인다.' 6. 그림자: '파멸시킨다.' 7. 트릭스터: '혼란을 일으킨다.' 이다. (S. 보이틸러, 『영화와 신화』, 26-46쪽) 보이틸러가 정리한 캠벨의 12단계 영웅의 순환은 동양 사상에서 12지 순환인 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와 유사하다. (모로하

(生), 단(旦), 정(淨), 축(丑) 4가지로 전형(典型)화되고 대부분 권선징악의 주제로 마무리된다.

다음 영웅성을 살펴보면 캠벨의 신화 이론과 경극은 소설이나 실제 역사 혹은 일상 속의 영웅을 주제로 한다.¹⁴⁾ 캠벨의 신화 이론과 경극에서 주인공은 아무리 일상의 서민일지라도 운명과 용기 있게 맞닥뜨린다. 캠벨의 신화 이론이든 경극이든 주인공의 좌절을 주제로 하는 작품은 없다. 주인공은 아무리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결국은 운명을 이겨내고 있고 신분이나 사회적 편견에 구애되지 않는다.

다음 비일상성을 살펴보면 캠벨의 신화 이론과 경극은 일상을 낮설게 함으로부터 시작한다.¹⁵⁾ 캠벨이론의 시작은 소명에 의해 일상으로부터 벗어남에서 시작한다. 경극 또한 그 화려한 분장에서부터 일상과는 다른 낮선 현실에서 출발하게 한다. 이 비일상성이 경극과 캠벨 신화 이론에 기반한 작품들이 흥행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된다.

시 데쓰지, 『십이지 이야기』, 최수빈 역, 바오, 2008년, 29-30쪽) 또한 7캐릭터는 12지 순환의 뼈대가 되는 복두7성 탐랑(貪狼), 거문(巨文), 녹존(祿存), 문곡(文曲), 염정(廉貞), 무곡(武曲), 파군(破軍)과 그 구조가 유사하다. 실제 복두7성의 이름은 당나라 때 바라문승이 번역한 『불설복두칠성연명경』에 수록되어 있던 것이라고 한다. 이 경에서는 복두칠성의 일곱별에 각각 탐랑·거문·녹존·문곡·염정·무곡·파군 등의 이름을 붙이고 이들을 동방의 일곱 세계를 주재하는 일곱 여래(如來)로 묘사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부적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김만태, 「성수신앙의 일환으로서 복두칠성의 신앙적 화현 양상」, 『동방학지』 제159집, 2012년, 158-159쪽) 7성의 이름은 인도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오현진, 「紫微斗數 研究- 成立 背景과 理論의 土臺를 中心으로-」, 공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년, 55-57쪽) 실제 인도의 7성에 유사한 이름이 나타난다. (심재관, 「Kirttika와 칠성현(七聖賢), 그리고 아그니-베다 문헌의 별자리 신화소에 대한 한 분석」, 『인도철학』 제14집, 2003년, 152-153쪽) 각 이름의 의미는 후술한다.

14) 캠벨의 영웅신화는 노드롭 프라이의 지적대로 오늘날 영웅의 현실화정도에 따라 신화, 로망스, 상위모방, 하위모방, 아이러니로 구분되어 나타난다. 최민성, 「신화의 구조와 스토리텔링 모델」, 『국제어문』 제42집, 2008년, 508-509쪽.

15) 경극이 가지는 낮설게 하기 기법은 20세기 서양 연극계를 풍미한 브레히트 서사극이론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김영미, 「브레히트의 중국 전통극 '경극' 수용에 대한 비교고찰」, 『중국학연구』 제36집, 2006년, 226-229쪽) 그러나 경극이 낮설지 않은 중국인에게 경극이 낮설게 하기로 다가오는 것은 경극을 통해 당시 청나라의 귀족은 일상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 (박정희, 앞의 글, 48-49쪽) 반면 중국 대다수에게는 경극이 '국가상상'이라는 새로운 낮선 이미지로 다가왔다. (박병원, 「시가, 경극, 무협 -중국영화 속의 시의와 국가상상」, 『중국학논총』 제19집, 2006년, 94-102쪽)

경극과 캠벨 신화 이론의 공통점은 한편으로는 차이점의 시작이 된다. 이 차이점은 동양과 서양의 일반적인 차이점과 공통된다. 먼저 전형성을 살펴보면 캠벨의 신화 이론에 기반하는 게임이나 영화의 영웅들은 불우한 환경에서 상승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극은 반대로 왕이나 귀족 혹은 수호전의 무사와 같은 신적인 존재들이 평범한 세계로 하강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 영웅성을 살펴보면 캠벨의 신화 이론의 영웅성은 주로 집단의 문제보다는 개인의 문제를 우선한다. 반면 경극은 개인보다 집단의 문제를 우선한다. 오늘날 영화홍행의 공식처럼 캠벨 신화 이론에 기반한 영화나 게임의 출발점은 집단문제의 개인화에서 출발한다.¹⁶⁾ 그러나 경극은 돈키호테처럼 자기와 상관없는 집단의 문제에 개인의 호불호와 상관없이 영웅은 개입한다. 다음 비일상화의 낮설게 하기를 본다면 캠벨의 신화 이론이 청각과 이야기에 집중한 점진적 낮설게 하기라면 경극은 화려한 의상에서부터 시작하는 시각적 '낮설게하기'가 된다.¹⁷⁾

캠벨의 신화 이론으로 경극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생산적인 결과가 될 것임을 보여준다. 실제로 경극 「패왕별희」에 영화적 요소를 가미한 영화 「패왕별희」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며 전 세계에 경극 붐을 일으켰다. 영화 「패왕별희」의 인기는 경극의 스토리가 가진 영웅의 순환적 감동뿐 아니라 경극자체가 가지는 감동이 중첩되어 있다.

이 연구와 관련된 국내에서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경극과 캠벨 신화 이론을 비교한 연구는 없지만 경극의 흥행 요인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 선행연구는 경극에 대한 기법적 분석, 연극 형식적 분석, 내용적 분석으로 나뉘 볼 수 있다. 첫째, 경극에 대한 기법적 분석을 보면 경극 흥행 부활을 위해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 다른 형식 기법의 도입을 도모한다.¹⁸⁾ 둘째 연극 형식적 분석을 보면 경극 흥

16) 권도경, 「한국고전영웅서사원형의 재생산과 코리안 슈퍼 히어로물의 탄생, 그리고 할리우드 슈퍼히어로물과의 서사코드적 차이」, 『비교한국학』 제22집, 국제비교한국학회, 2014

17) 경극의 핵심이 경극 분장의 낮설게 하기에 있음은 영화 「패왕별희」의 주인공이 현대 경극에 반대하는 이야기로 나타난다. 김영숙, 「영화 「패왕별희」 서사의 다층적 은유」, 『중국어문학논집』 제38집, 2006년, 6-7쪽.

18) 하경심, 「중국영화 속 전통극의 향연 - 〈刀馬旦〉, 〈人·鬼·情〉, 〈霸王別姬〉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제76집, 2012년.; 동 운, 「애니메이션을 통한 중국 경극의 예술성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년 등이 있다.

행의 원인이 서양보다 더 강력한 경극 안에 있는 강도의 경험(Intensity)이라고 한다.¹⁹⁾ 셋째 내용적 분석을 보면 경극과 캠벨 신화 이론 비교를 가능하게 해 줄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연구들이 있다. 내용적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를 크게 경극에 관한 연구와 캠벨 신화 이론에 관한 연구로 나뉘 먼저 경극에 관한 연구를 살펴 보면 경극의 특징을 전형성과 전승에 의한 것으로만 해석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경극의 특징을 전형성, 허구성, 종합성으로 잘 구분한 송철규의 연구를 들 수 있다.²⁰⁾ 당초 신화를 통과의례라는 개념으로 해석한 캠벨 신화 이론은 경극이 한때 중국의 나 여기 지금을 강조하는 극들로 흥행에 성공했다는 기존 연구는 경극과 캠벨 신화 이론의 많은 비교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경극에 관한 연구는 아니지만 박기수는 캠벨이론과 미야자키 하야오 애니메이션의 특징을 전형성과 전승에 의한 것으로 해석한다.²¹⁾

캠벨의 신화 이론으로 경극을 연구하는 것은 동양문학이 가지는 자체원리에 대한 규명을 동반한다. 이 연구와 같이 동양문학이 가지는 자체원리에 대한 규명은 한국 고전문학에서 문학치료의 원리로 오랫동안 연구해 왔다. 문학치료는 캠벨과 같이 주역의 원리를 자녀-남녀-부부-부모라는 인간의 발달단계에 적용하여 동양 고전문학뿐 아니라 경극과 같은 모든 서사에 이론을 적용하고 있다.²²⁾ 그러나 캠벨과 같이 보다 정치한 구조의 틀이 요청된다. 동양의 문학원리는 한의학과 같이 입체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²³⁾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동양의 문학원리를 입체적으로 해석한 후 캠벨의 신화 이론에 적용하여 경극의 원리를 보다 구조적으로 살펴보고 경

19) 최병현, 「공연의 강도(Intensity of Performance)로 바라본 경극(京劇)의 미학적 특징 연구 - 경극 석수탐장(石秀探莊)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년.

20) 송철규, 『경극』, 살림, 2004년, 40쪽.

21) 박기수, 「『모노노케 히메』의 스토리텔링 전략 연구」, 『인문콘텐츠』 제17집, 2010년.

22) 정운채, 「인간관계의 발달 과정에 따른 기초서사의 네 영역과 <구운몽> 분석 시론」, 『문학치료연구』 제3집, 2005년 ; 최원혁, 「영화 <토르>와 <쿵푸팬더2>에 나타난 서사발생지점에 대한 연구」, 『문학치료연구』 제25집, 2012년.

23) 박용규, 『동양학, 과학을 말한다: 동양의학을 중심으로 다시 쓰는 동양학의 재발견』, 시나리오알타, 2013년.

극 흥행에 대한 내용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2. 경극과 캠벨 신화 이론의 공통점과 차이점

캠벨의 신화 이론으로 경극을 분석하지 않았던 이유는 동양과 서양이 서로 독립적으로 발전되어 왔다는 무의식적인 전제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캠벨 신화 이론이 경극과 같이 동양적 사유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은 캠벨 신화 이론이 경극과 비교하여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명확히 존재한다는 단서가 된다.

비교에 앞서 먼저 캠벨이론을 살펴보면 캠벨 신화 이론이란 융 심리학에 기초하여 대부분의 신화를 영웅의 순환이라는 원질신화로 통일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나 여기 지금의 현재적 의미로 해석하는 서양의 주요한 신화해석이론이라 할 수 있다.²⁴⁾ 서양의 신화 이론은 종교학과 같이 당초 제국주의의 식민문화 이해 수단으로 출발하여 신화를 통일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현재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구조주의, 캠벨, 실증주의, 실존주의 신화 이론으로 나뉠 수 있다. 구조주의는 캠벨과 같이 원질신화로 통일할 수 있으나 현재적 의미는 가질 수 없는 반면 실존주의는 반대로 원질신화로 통일할 수는 없지만 현재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실증주의에서 신화는 철저히 사회를 유지시키는 수단일 뿐이다.²⁵⁾ 신화 이론의 다양한 정립이 있었지만 오늘날 수많은 게임과 영화의 흥행에 활용되는 이론은 캠벨의 신화 이론이 거의 유일하다, 실제 스타워즈의 감독이 캠벨이론에 따라 교과서적으로 시나리오를 써서 대흥행을 기록한 이후 수많은 시나리오가 캠벨 신화 이론에 따라 쓰여지고 흥행 성공률이 크게 높아졌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²⁶⁾

캠벨 신화 이론에서 말하는 영웅의 순환이라는 원질신화를 살펴보자. 영웅은 소명을 받지만 처음에 소명을 거부한다. 하지만 결국 소명을 따르는 입문단계를

24) 김현자, 「캠벨의 신화론」, 『종교와 문화』 제6집, 2000년, 53-58쪽.

25) 김현자, 같은 글, 47-48쪽.

26) 김공숙, 「텔레비전 드라마의 영웅서사구조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년, 3-4쪽.

시작으로 영웅은 수많은 시련을 거쳐 소명을 실현하는 심연을 맞본 후 귀환한다. 이 전체 과정이 영웅의 순환이다. 캠벨 신화 이론에는 원질적인 순환뿐 아니라 원질적인 캐릭터가 있다. 영웅을 중심으로 영웅을 도와주는 조력자나 영웅의 소명을 알려주는 전령, 시험을 통해 영웅을 단련시키는 관문수호자, 영웅의 순환을 방해하는 영웅의 그림자와 변신자재자, 그리고 영웅의 순환을 예측불가능하게 만드는 트릭스터라는 7명의 전형적 캐릭터가 있다.²⁷⁾

캠벨 신화 이론에서 수많은 신화들이 하나의 원질신화로 통합될 수 있는 이유는 수많은 신화들은 사실 인간 내면에 있는 대칭적인 욕망들의 조합일 뿐이기 때문이다. 캠벨 신화 이론이 기반한 융 심리학에서 수없이 다양한 인간의 인생 또한 인간의 대칭적 욕망을 순례해가면서 자신의 자이를 발견하는 과정일 뿐이듯 모든 신화는 영웅이 여정을 통해 심연을 발견하는 것일 뿐이다.²⁸⁾ 신화들의 차이는 여정순서의 차이일 뿐으로 입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원질신화가 순서만 바뀐 것이다.

캠벨 신화 이론의 기초가 된 융 심리학은 주역의 대칭성과 비슷한 면이 많다. 이러한 요소는 경극에서도 발견된다. 시골 연극양식과 北京의 관극 양식이 합쳐져 탄생한 경극 또한 캠벨 신화 이론과 같이 주제와 등장인물이 정형화되고 수많은 히트작들을 양산해 냈다. 캠벨 신화 이론과 같이 다양한 경극의 주제는 영웅의 순환과 같은 권선징악이고 캠벨 신화 이론의 7가지 캐릭터처럼 경극은 4가지 등장인물이 정형화되어 있다. 캠벨 신화 이론과 비교해 보면 경극은 경극 고유의 화장 기법인 검보를 통해 캠벨의 인물보다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더 명확히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경극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예술 양식은 『주역』의 구조와 유사한 면이 많다. 『주역』은 세계를 태극이라는 원질의 무한한 중첩 반복으로 보는데, 경극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건들도 64괘로 대표되는 사건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또 등장인물의 경우는 『주역』에서 『주역』의 8괘를 복두칠성의 7가지 별로 대표되는 7가지 인물로 나타낸 것처럼 경극의 캐릭터들은 캠벨의 7가지 캐릭터와 같이 복두칠성의 7가지 캐릭터의 형태로 나타난다.²⁹⁾

27) S. 보이탈라, 『영화와 신화』, 41-42쪽.

28) 김현자, 『캠벨의 신화론』, 58-59쪽.

결국 캠벨 신화 이론과 경극은 이러한 공통적 요소 때문에 주역이 가지고 있는 전형성, 영웅성, 비밀상성이라는 세 가지 비교 요소를 가지게 된다. 캠벨 신화 이론과 경극의 공통점, 차이 그리고 차이의 유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1) 전형성

전형성은 순환에서 수직적으로 순환을 규정짓는 요소라 할 수 있다. 경극과 캠벨 이론에서 나타나는 전형성은 영웅의 순환과 캐릭터이다. 영웅의 순환은 결국 권선징악이라는 주제를 가지므로 보다 전형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은 캐릭터라고 할 수 있다. 실제 경극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경극의 전형적인 캐릭터 분장에 매우 깊은 인상을 받고 경극 캐릭터의 전형적 상징은 경극을 이끌어 가는 주요 요소이다.³⁰⁾

캠벨 신화 이론에서 캐릭터는 순환을 지탱하는 축과 같이 주인공을 중심으로 주인공에 호의적인 전령, 조연자, 관문수호자 그리고 주인공에게 적대적이거나 위협을 줄 수 있는 적대자, 변신자재자, 트릭스터라는 7유형의 캐릭터가 있다. 주인공의 입장에서는 조연자와 적대자가 뚜렷이 자신에 대한 호의와 불호의가 나타난다면 호의적으로 간주되는 전령이나 관문수호자 위협 세력으로 간주되는 변신자재자나 트릭스터는 상황에 따라 도움이 되기도 위협이 되기도 하는 존재들이다,

29) 역(易)의 순환은 캠벨 이론과 같이 영웅의 순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주광호, 「신화(神話)적 사유로 본 북송 성리학에서 '생성'의 의미 - 〈태극도설〉과 〈원회운세〉를 중심으로」, 『철학연구』 제50집, 2014년, 37-40쪽) 역(易)의 순환을 지탱하는 구조로써 칠성은 순환의 역할에 따라 이름 지어진다. 칠성은 칠요(七曜)와 합쳐지며 인간의 운명적 순환을 주관하는 본명성이 된다. (김만태, 앞의 글, 163-164쪽) 칠요는 일월목화금수토이다. 따라서 일월에 해당하는 중심인 주인공(탐랑, 日, 천, 1성)를 중심으로 적대적 수평축을 이루는 관문수호자(거문, 地, 月, 2성), 적대자(파군, 金, 7성) 그리고 우호적 수직축인 조연자(화, 木, 3성), 전령(수, 木, 4성), 중립적 중심축인 트릭스터(염정, 土, 5성), 변신자재자(무곡, 木, 6성)가 된다. (강진원, 『易으로 보는 동양 천문 이야기』, 정신세계사, 2006년, 131-139쪽 참고)

30) 이광복, 「경극의 연기예술에 대한 고찰 - 정식화와 허의화를 중심으로」, 『연기예술연구』 제2집, 2010년, 118-125쪽.

캠벨의 영웅순환이라는 원질신화는 세계의 모든 스토리를 영웅이 소명에 입문하는 단계와 어려움 끝에 소명을 완수하고 다시 회귀하는 구조의 순환이라 보는 신화 이론이고 7명의 캐릭터는 순환의 각 4분면과 같이 영웅 순환의 축을 이룬다.³¹⁾ 캠벨에게 영향을 준 융이 우주를 자아 발견을 위한 순환이라고 본 것은 우주가 대칭적인 힘을 유지하는 방법이 7성이 가진 7가지 별의 속성에 따라 8괘, 9성의 순환을 이루는 동양 사상에서 영향 받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³²⁾

검보로 선명히 드러나는 전형적인 경극의 인물 또한 크게 생과 모, 淨과 丑으로 구분된다. 경극에서의 인물 구분인 생과 단, 정과 축은 캠벨 신화 이론과 같이 주인공을 중심으로 호의적인 세력과 적대적인 세력으로 나눈 것은 아니지만 캠벨 신화 이론과 같이 고정적인 성격을 가진 생, 단과 가변적인 역할을 하는 정, 축이 있다는 점에서 캠벨 신화 이론과 유사한 구조가 있다.

캐릭터는 작품의 개수만큼 다양하다. 그러나 그 수많은 캐릭터 속에서도 일정한 패턴이 감지된다. 일정한 패턴을 동양은 64괘로 표현한 바 있다. 더욱이 동양의 주역은 나아가 64괘를 서로 연산하게 만들어 다양한 캐릭터가 만나는 다양한 상황까지 패턴화해 내었다. 캠벨이 영웅의 순환과 인물을 정형화한 것처럼 동양 연극인 경극 또한 주역이 구축해 놓은 영웅의 순환 단계와 캐릭터를 정형화할 수 있다. 실제 북두칠성으로 상징되는 주역의 순환 캐릭터는 캠벨의 캐릭터와 같이 탐랑(주인공)을 중심으로 수직적으로 우호적인 녹존(조언자), 문곡(전령)과 수평적으로 적대적인 파군(그림자) 거문(관문수호자), 입체적으로 중립적인 무곡(변신자재자), 염정(트릭스터)이 있다.

경극의 캐릭터인 생, 단, 정, 축은 7성과 같이 우호와 적대를 명확히 하진 않지만 고정적인 생, 단과 가변적인 정, 축을 배치함으로써 캠벨 캐릭터와 같이 경극의 캐릭터 또한 순환을 유지시키는 유사한 효과를 보인다. 남자 주인공 격인 생과 여자 주인공 격인 단은 시종일관 변하지 않는 상수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정과 축은

31) 조셉 캠벨 저, 이윤기 역,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민음사, 2007년, 315-316쪽.

32) 임현수, 「조셉 캠벨의 신화 읽기: 참된 자아를 향한 여정 - 『신화의 세계』(과학세대 옮김, 까치글방)에 대한 서평 -」, 『종교문화연구』 제17집, 1999년; 오현진, 「紫微斗數研究 - 成立 背景과 理論의 土臺를 中心으로 -」, 공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년.

상황에 따라 가변하는 역할을 한다. 같은 순환이지만 캠벨의 7캐릭터가 수직-수평-입체라는 3축으로 구분했다면 경극의 생단정축은 『주역』의 4상으로 구분했다. 주역 8괘에서 중심인 수-화 축은 변하지 않는 중심이 되고 나머지 3축으로 변화를 설명하듯 경극은 생-단을 변하지 않는 중심축으로 하고 나머지 정, 축을 변하는 축으로 캠벨의 캐릭터를 단순화했다. 캠벨 신화 이론에서 주인공과 조연자, 적대자가 다소 고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전령과 관문수호자, 변신자제자와 트릭스터가 다소 가변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과 유사하다.³³⁾ 64괘는 보다 상세히 순환을 구분했지만 경극의 캐릭터가 캠벨 신화 이론보다 더 세밀하지 않게 분화된 것은 동양보다 서양이 개인을 강조하는 동서양의 차이와 연관될 것이다.

2) 영웅성

영웅성은 순환에서 수평적으로 순환을 규정짓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신화 이론에서 캠벨 신화 이론이 가지는 특이한 위치는 신화를 현재적 개념으로 해석한다는 점이다.³⁴⁾ 수많은 신화 이론이 있었지만 실제 게임이나 영화에 적극 활용되는 것은 캠벨이론이 거의 유일한 것임을 감안할 때 캠벨 신화 이론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일반인을 모두 영웅으로 간주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캠벨은 모든 인간은 동일한 인간이 없고 영웅이 아닌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³⁵⁾ 일상에 비치는 초라한 현대인에게 캠벨 신화가 보여주는 영웅의 이미지는 현대인의 정신세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아니할 수 없다. 영웅성은 캠벨이론에 입각한 수많은 게임과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는 이유라 할 수 있다.

캠벨 신화 이론에 입각한 게임이나 영화와 같이 경극 또한 흥행에 성공한 대표

33) 캠벨 이론의 측면에서 생, 단, 정, 축을 정하는 기준은 가변적인 성격의 소유여부이고 가변적 성격을 정하는 기준은 주인공의 역할에 나타나는 관문수호자나 트릭스터의 역할 여부이다. 삼국지의 관우(關羽)의 경우 관우는 주인공의 역할이므로 생의 역할도 가능했지만 변신자제자라는 특성이 있으므로 전통적으로 정의 역할을 수행했다.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한 역이 여러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로맨스와 코미디 영화에서는 대개 이성의 인물이나 주인공이 변신자제자의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고 한다.(S. 보이틸라, 같은 책, 45쪽)

34) 김현자, 같은 글, 44-45쪽.

35) 조지프 캠벨 저, 노혜숙 역, 『블리스 내 인생의 신화를 찾아서』, 아니마, 2014년, 170-176쪽.

적인 장르라 할 수 있다. 조출한 형식으로 출발한 경극이지만 다양한 기존 연극의 장점을 수용하여 경극이라는 장르에 이르렀고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경극이 흥행에 성공한 이유 중의 하나로 경극의 주인공은 귀족이든 소시민이든 영웅의 기개를 나타낸다는 점이다. 외세의 침략이 한창이던 중국 근대초기에 전성기를 맞이했던 장르인 만큼 경극이 영웅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캠벨 신화 이론의 콘텐츠들이 신화의 현재성을 통해 영웅성을 강조하듯이 경극은 경극 고유의 특성을 통해 더욱 그 현재성을 부각시킨다. 경극의 화려한 분장은 주인공을 분장 그 자체로 영웅으로 만들며 관객 또한 자신도 영웅과 동일시한다.

다만 경극의 영웅은 캠벨 신화 이론에 비해 개인 보다는 집단지향을 강조하므로 오늘날 캠벨 신화 이론의 콘텐츠만큼 대중적 인기를 못 얻고 있다. 두 콘텐츠의 영웅성 차이는 동서양 차이에 기인된다.³⁶⁾

동서양 영웅의 차이가 집단성과 개인성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대륙과 해양의 풍토가 빚어낸 오랜 문화의 산물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항이다.³⁷⁾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영웅의 순환을 볼 때 서양은 오이디푸스 이야기와 같이 운명에 저항하고 아버지를 살해하려는 부친살해적인 영웅의 속성을 나타낸다면 동양의 경우는 양띠 오이디푸스라고 할 만큼 서양과 반대로 부친살해가 아닌 자식살해나 자기살해와 같은 방향으로 영웅의 순환이 나타난다는 점이다.³⁸⁾

동서양 영웅의 표면적인 차이가 캠벨이론을 동양 예술에 적용하는 것을 어려워하게 된 대표적인 이유가 되었다. 물론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양의 영웅은 서양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는 가장 비영웅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서양의

36) 동양과 서양이 집단성과 개인성으로 대표된다는 것이 오늘날 심리학적 실험으로도 입증되었다. (리처드 니스벳 저, 최인철 역, 『생각의 지도』, 김영사, 2004년, 83-106쪽.)

37) 최영진, 『동양과 서양』, 지식산업사, 1994년, 37-41쪽.

38) 김영희, 『한국 구전서사의 부친살해』, 월인, 2013; 동양과 서양의 사유체계가 반대라는 것을 역학적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하늘이 천지를 만들 때 곧 건에서 곤으로 진행할 때에는 반대로 유도로부터 불, 선의 순으로 역도(逆到)한다. 화(火)와 수(水)는 각각 지(地)의 작용과 천(天)의 작용을 표상하는 것이다. 수(水)의 아래로 흐르는 속성을 통하여 천(天)에서 시작하여 지(地)에서 완성되는 천도(天道)의 도생역성(倒生逆成)작용을 표상하며, 화(火)의 위로 올라가는 속성을 통하여 지(地)에서 시작하여 천(天)으로 완성되는 지도(地道)의 역생도성(逆生到成) 작용을 표상한다. 이현중, 『『서경』의 역학적 이해』, 『동서철학연구』 제35집, 2005년, 153쪽에서 재인용.

영웅 또한 동양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과립치한 부도덕자로 보였기 때문이다.³⁹⁾ 동서양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경극은 캠벨 신화 이론에서 가장 비영웅적인 장르였다. 따라서 동서양 어느 쪽도 경극의 영웅을 캠벨 신화 이론의 영웅과 연결하지 않았다.

3) 비밀상성

비밀상성은 순환에서 순환을 유지시켜 주는 초월적 입체성이라 할 수 있다.⁴⁰⁾ 브레히트는 동양 연극의 특징을 '낯설게 하기'로 규정하여 서양 연극에 일대 혁신을 가져온 바 있다. 종래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법칙화된 서양 연극의 전통은 동양과 같이 나 여기 지금의 입장에서 자유롭게 변화하기 보다는 정해진 시공간과 인물의 틀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었다.

브레히트가 동양의 연극에서 발견한 것은 서양과 같은 수미일관의 동일성에서만 연극의 감동이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동양과 같이 차이를 중시하는 '낯설게 하기' 기법이 오히려 더 일상의 숨은 진리를 계시해 준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브레히트의 발견은 훗날 초현실주의의 다양한 기법으로 발전하여 오늘날까지 예술계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⁴¹⁾

판소리를 포함하여 동양의 연극이 대부분 '낯설게 하기'를 주기법으로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경극은 동양인에게도 낯선 충격적인 경험을 보여준다. 검보를 한 경극의 주인공을 처음 보면 관객은 충격을 받고 일상의 긴장은 사라지고 환상의

39) 캠벨은 동양은 영웅의 광대한 이미지를 선호하고 서양은 영웅에게 웅장한 서사시를 기대한다고 한다. (조지프 캠벨 저, 홍윤희 역, 『신화의 이미지』, 살림, 2005년, 50쪽.)

40) 캠벨은 영웅의 순환이라는 아이디어를 통과의례에서 가져왔다고 한다. 캠벨 영웅의 순환은 따라서 통과의례와 같이 입문-시련-귀환의 과정이 된다. 통과의례는 성인의례와 같이 의례로 마무리 되고 의례는 의례 이전과 이후를 비밀상화로 만든다. 오늘날 의례가 사라짐으로써 영웅이 사라지고 현대인이 다스베이더와 같은 가면 속의 인간이 된 것이 가장 현대의 가장 큰 문제라고 캠벨은 말한다. (조지프 캠벨, 『신화의 힘』, 273쪽) 경극의 검보는 그 자체가 캠벨이 말하는 의례인 신의 가면과 영웅으로의 변신인 의례가 된다. (조지프 캠벨 저, 이진구 역, 『신의 가면 1』, 까치, 2003년, 35-44쪽.)

41) 김영미, 같은 글.

세계로 급격히 비일상화 된다.

캠벨 신화 이론에서 평범한 범인이 영웅으로 바뀌는 것은 낮은 소명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이다. 캠벨 신화 이론은 경극과 같은 화려한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다만 서사의 기법으로만 비일상화를 구현하지만 경극은 더 오래전부터 분장, 연기, 복장(의상)을 통해 비일상화를 추구할 수 있었다.

비일상화를 추구하는 캠벨 신화의 콘텐츠는 결과적으로 환타지 장르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할리우드 영화는 대부분 환타지 장르이면서 캠벨 신화의 공식을 따르고 있다. 스타워즈, 인디애나 존스, 주라기 공원 등등. 경극 또한 일상의 역사에 환타지의 속성을 불러일으켰다. 경극 또한 잊혀진 역사가 경극으로 옷을 갈아입으면서 생생하게 현실로 되돌아왔다. 「패왕별희」는 대표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다.

경극과 캠벨 신화 이론의 콘텐츠가 비일상성을 추구한다지만 둘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경극이 분장, 연기라는 시각적 효과를 중심으로 압축적으로 낮설게하기를 추구했다면 캠벨 신화 이론의 콘텐츠는 청각위주의 점진적 비일상화를 진행했다. 속도 또한 경극이 캠벨 신화 이론과 비교 연구되지 않은 이유가 된다. 경극은 캠벨이론의 콘텐츠처럼 2-3시간 영화가 아닌 짹짹 압축적 장면으로 구축되므로 장기적 서사라 할 수 있는 캠벨 신화 이론의 서사에 나타난 특징은 주목받지 못했다.

3. 캠벨 신화 이론으로 분석한 「패왕별희」와 할리우드 영화

「패왕별희」는 중국 경극을 대표하는 경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패왕별희」가 경극 가운데서도 가장 인기있는 작품이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경극이라는 장르를 중국 예술의 경지로 올리며 전 세계에 알린 메이란팡(梅蘭芳)의 대표작이기 때문이다. 매란방과 경극 「패왕별희」 이야기는 소설로도 출간되고 첸카이커(陳凱歌) 감독의 영화로도 2편이나 제작되어 경극 영화의 대표작이 되기도 하였다. 「패

왕별희」가 경극 가운데 유난히 인기를 끈 이유는 인물과 소재의 특수성도 있지만 무엇보다 캠벨 신화 이론 기반의 다른 콘텐츠와 같이 '나 여기 지금'으로 대표되는 신화의 공식을 잘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패왕별희」는 서양적인 캠벨의 신화 이론과 경극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매우 명확하게 나타난다.

1) 영화 「토르」와 「패왕별희」의 전형성

캠벨 신화 이론에서 영웅의 전형성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오늘날 캠벨 신화의 전형성이 적용된 장르는 로맨스에서 환타지까지 다양하게 있지만 순환 방향의 측면에서 캠벨의 영웅은 크게 소시민에서 영웅으로 비약하는 상승형 영웅과 귀족에서 평민으로 하강하는 하강형 영웅으로 나뉜다.⁴²⁾ 이때 하강형 영웅은 일상인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영웅이 아니거나 반영웅으로 볼 수 있지만 전근대적 가치가 모두 개혁되어 온 오늘날에는 하강형 영웅이 상승형 영웅보다 더 근대적 영웅으로 보인다. 「패왕별희」는 전근대적 소재이지만 하강형 영웅이기에 「패왕별희」와 캠벨 신화 이론 모두 동양 문학의 대표적 작품과 서양의 대표적 이론이었음에도 비교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주로 서양 신화를 영화화 해 온 캠벨 신화 이론 기반의 콘텐츠 가운데 대표적인 하강 영웅 영화는 「토르」라 할 수 있다. 토르는 게르만 신화에서 하느님의 아들이었지만 의욕만 넘치고 지혜가 부족해 천상 세계가 위기인 상황에서도 왕자 자리에서 쫓겨나고 지상으로 귀양을 가게 된다. 토르는 그러나 절망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내면적 일관성을 지켜낸다. 지상에서 사랑의 힘을 경험하고 다시 천상으로 올라가 위기에 빠진 천상 세계를 구하고 지혜와 의욕을 겸비한 왕자로 부활한다. 「토르」는 할리우드의 블록버스터이자 인기시리즈물이다. 캠벨 신화 이론에 근거하여 다양한 작품을 영화화했지만 하강형 신화는 드물다. 「토르」는 처음부터 시작이 하늘로부터의 하강신화가 계속되는 대표적 영화이다.

「패왕별희」의 초패왕 항우(楚霸王 項羽, 이하 패왕)도 「토르」와 같이 전형적인

42) 이현중, 같은 글. 동양은 1→0(역생도성)으로 내려가는 하향적 구조, 서양은 0→1(도생역성)로 올라가는 상승적 구조라 할 수 있다.

하향 영웅의 순환을 한다. 패왕은 진시황을 누르고 라이벌 유방도 살려주는 인애로운 정치로 문무를 모두 겸비한 군왕으로 칭송받는다. 그러나 패왕은 유방에게 배신당하고 유방의 함정에 빠져 토르와 같이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토르와 같이 패왕도 최후의 순간에 내면의 일관성을 버리게 되는 유혹을 받으나 결국 죽음으로써 그 유혹을 이겨내고 만인의 추앙을 받고 우미인(虞美人)의 사랑을 빛나게 하여 주변의 지지를 받는다.

패왕이 토르와 같이 전형적인 하강형 순환을 하지만 「패왕별희」의 인물 구성은 「토르」보다 단순하다. 「패왕별희」에서 우호적인 조연자, 전령, 관문수호자는 각각 우미인, 신하, 패왕의 양심이다. 그리고 적대적인 그림자, 변신자재자, 트릭스터는 각각 유방, 한신, 운명이라 할 수 있다. 패왕은 관문에서 자신이 자신의 일관성보다는 실리를 좇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패왕의 양심은 번번히 실리보다는 일관성을 쫓게 하였다. 패왕은 양심을 지키기 위해 외면을 바꿀 수 있는 변신자재자였다. 하늘은 트릭스터처럼 냉정하게 패왕에게 한 치의 에누리도 없이 응분의 실패를 안겨 주었지만 역으로 영원한 추앙을 주기도 하였다. 캠벨의 관점에서 「패왕별희」의 캐릭터는 정이 패왕, 단이 우미인, 생이 유방, 한신이 된다.⁴³⁾ 운명이 경극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패왕이 스스로 영웅의 순환을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캠벨 신화 이론에서 영웅성이란 신화의 현재성이라는 의미에서의 영웅이다. 신화속의 신과 같은 영웅성이 가장 영웅 같지 않은 일반인에게도 모두 있다는 것이 캠벨의 영웅이론이다. 캠벨 이론에서 하향적 영웅은 따라서 매우 역설적인 존재가 된다. 일상 속에 영웅성이 있다는 것을 가장 반일상적인 존재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캠벨 이론에서 하향적 영웅의 시험은 가장 높은 위치에 있지만 그 위치를 흔드는 아주 작은 시련에서 시작된다.

「패왕별희」가 「토르」와 유사성을 나타내는 것은 하향 영웅의 전형성도 있지만 영웅성 그 자체도 있다. 하향성 영웅의 특징은 상향성 영웅과 반대로 자신의 직위

43) 경극에서는 인물의 내면 변화보다는 외면 변화를 강조하여 패왕이 정으로 나타난다. 캠벨 이론 측면에서 패왕은 주인공이자 동시에 변신자재자이기도 하다. 경극에서는 패왕의 내면적 변신에 주안점을 두어 정으로 분장하고 반면 한신, 유방은 내면적으로는 변화가 없으므로 생이 된다. (권미정, 백계, 「경극 패왕별희에 나타난 의상 연구」, 『China연구』 제16집, 2014년, 144쪽.)

가 높을수록 평범한 인간이 된다. 하향성 영웅은 인간 본래의 양심을 지켜나가는 영웅이 된다. 「패왕별희」는 동양 역사에서 가장 평범과 거리가 멀었던 황제의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영웅적인 부분이었다. 영웅이란 대개 상황식 영웅으로 중국의 황제라는 직위는 영웅이 되기에 가장 방해가 된다. 더욱이 집단을 개인 보다 중시하는 동양에서 황제 영웅은 매우 유별난 존재이다. 패왕은 가장 억울한 상황에서도 황제라는 기존의 품위를 유지하면서도 사랑을 찾은 존재이기에 일반 서민들도 감동하게 하는 영웅적인 면모를 보여줬다.

「토르」가 특이한 것은 서양 신화이지만 아버지를 극하는 영웅이 아니고 아버지와 화합하는 영웅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패왕별희」와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토르」는 서양의 오이디푸스 신화에 보다 가깝게 나타난다. 토르는 아직 왕위에 오르지 못한 왕자였고 막 왕이 되려고 하는 순간 시련에 빠지게 되지만 패왕은 이미 진시황마저 정복하고 천하를 통일한 아버지의 위치였다. 토르의 라이벌이 아버지를 이기려는 배다른 동생이라면 패왕의 라이벌은 자신이 살려준 아들같은 유방이다. 토르의 사랑은 개인과 개인 간의 사랑이지만 패왕의 사랑은 군왕으로서 국가의 사랑이 된다.

하향식 영웅의 모델이 있는 캠벨의 신화 이론도 서양 이론의 하나이기에 개인 중심의 모델에서 패왕을 영웅으로 보는 것이 어려웠다. 과거와 달리 삼강오륜이 봉건 이데올로기로 간주되는 오늘날 특히 「패왕별희」와 같은 경극의 고전적 모델 또한 영웅은 고사하고 봉건 이데올로기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캠벨의 이론으로 바라본 「패왕별희」의 패왕은 동양적인 하향적 영웅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영화 「토르」와 「패왕별희」의 전형성을 순환의 수직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삼강오륜에서 수직을 상징하는 부자관계 즉 아버지와 아들의 수직적 관계가 강조된다. 캠벨의 7캐릭터 중 조연자와 전령은 칠성의 문곡, 녹존과 같이 주인공을 도와주고 아버지와 아들같이 수직적이지만 상생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들의 관계가 이야기를 이끄는 수직적 요소가 된다. 「패왕별희」에서 패왕과 우미인, 그리고 패왕의 위협을 알려주는 충신들은 서로 아버지와 아들의 수직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영화 「토르」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은 갈등하는 관계이지만 「패왕

별희)와 같이 결국은 새로운 변신을 통해 재결합하는 하강 후 순환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이 하강 후 순환의 수직 구조가 형식적 강도(Intensity)의 극대화나 패왕별희의 중첩적 구조의 작동원리가 된다.⁴⁴⁾

2) 영화 「카사블랑카」와 「패왕별희」의 영웅성

「패왕별희」에는 『삼국연의』와 같은 영웅의 이야기와 『금병매』와 같은 사랑의 이야기가 섞여 있다. 패왕은 중국인이 사랑하는 관우와 같이 지략만큼 신의를 위주로 하는 측면이 있고 이는 우미인도 마찬가지다. 그들에게 적대자는 어쩌면 운명과 같다.⁴⁵⁾

개인과 집단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동서양의 영웅성을 비교해 본다면 「패왕별희」는 「카사블랑카」와 비교해 볼 수 있다. 「카사블랑카」는 파리에서 만난 두 연인이 애국심과 사랑 사이에 고민하다 결국 애국심을 택하는 주제로 귀환하는 구조이다. 패왕과 우미인의 관계는 「카사블랑카」와 같이 명시적인 삼각관계는 아니지만 패왕과 우미인이 영웅의 길과 사랑의 길 사이를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 「카사블랑카」와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카사블랑카」 또한 「패왕별희」와 같이 해외로 탈출할 수 있는 두 장의 티켓이 있다. 「카사블랑카」의 두 연인, 특히 여자 주인공이 사랑의 길을 택한다면 언제라도 도망을 칠 수 있다. 그러나 연인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음에도 끝내 애국심의 길을 택하는 「카사블랑카」의 잉그리드 버그만처럼 「패왕별희」의 우미인과 패왕은 결국 둘의 사랑을 택하지 않고 영웅과 애국의 길을 택했다는 것이 두 작품의 공통점이다. 주인공들의 선택은 「카사블랑카」를 불멸의 영화로 만들었듯 「패왕별희」를 경극의 대표작으로 만들었다. 특히 「패왕별희」는 역사 이야기였고 특히 주인공

44) 최병현, 같은 글: 김영숙, 같은 글.

45) 캠벨 신화에서 영웅의 죽음 선택은 통과제의와 같은 성격을 갖는다. 김유석, 『이청준 소설 연구 - 의식의 분열에서 신화적 통합으로』, 중앙대학교 박사논문, 2013년, 21-22쪽. 캠벨은 영웅이 따르는 신화적 모험의 표준 궤도를 각 종교의 통과제에 나타난 양식인 '분리', '입문', '회귀'로 표현한다. 조성두, 「수운 최제우와 홍암 나철의 영웅신화적 요소에 대한 비교연구」, 『신종교연구』 제31집, 2014년, 181쪽.

이 제왕이었다는 것이 중국인의 자기 의식에 깊이 박힐 수밖에 없었다. 영화인 「카사블랑카」는 재연되지 않았지만 「패왕별희」와 같은 경극은 주인공의 연기에 따라 갈등의 깊이와 넓이가 다르게 나타나고 사랑을 택할 수 없는 아픔, 공과 사의 갈등이 더 애절하게 나타날 수 있었다.

「패왕별희」에 나타나는 사면초가 장면은 「카사블랑카」에 나타나는 추적 장면과 유사하다. 패왕과 우미인은 나치스에 물리는 레지스탕스처럼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었고 사랑을 택하기보다 애국심을 택했다. 사랑하는 연인을 남편과 함께 떠나 보내주는 「카사블랑카」의 험프리 보가트처럼 오강(烏江)에 배를 대고 자신을 태워주려던 뱃사공을 보내고 패왕은 자신을 희생한다.⁴⁶⁾

「패왕별희」와 「카사블랑카」를 비교해 본다면 「카사블랑카」와 「패왕별희」에서도 동서양의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다. 「카사블랑카」와 「패왕별희」 모두 개인보다는 집단을 택하지만 주인공의 신분이 결코 동일하지 않고 결과를 운명에 거는 방법이 달랐다. 「카사블랑카」의 험프리 보가트는 스스로 하늘의 운명에 거스르는 길을 택했다면 패왕은 하늘의 뜻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하늘의 뜻에 맡겼다. 「카사블랑카」가 아들 입장의 서양적 오이디푸스라면 「패왕별희」는 동양적인 역오이디푸스의 아버지 입장이 된다.

영화 「카사블랑카」와 「패왕별희」의 영웅성을 순환의 수평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삼강오륜에서 수평을 상징하는 부부관계 즉 남편과 아내의 수평적 관계가 강조된다. 캠벨의 7캐릭터 중 그림자와 관문수호자는 칠성의 파군와 거문과 같이 주인공의 경쟁자가 되지만 주인공의 순환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존재이다. 남편과 아내같이 수평적이지만 상극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둘의 관계와 갈등이 이야기의 주요 갈등이 된다. 「패왕별희」에서 유방과 그 신하, 그리고 패왕을 시기한다고 간주되어 온 하늘의 운명은 패왕을 파멸시키고 패왕의 운명을 가로막는다. 그러나 패왕은 「카사블랑카」의 주인공처럼 이익보다는 명분을 택함으로써 영웅의 순환을 완성한다.

46) 패왕별희의 마지막 장면에 나타나는 오강은 노아의 홍수와 같이 물의 이미지를 통해 영웅의 재생을 나타낼 수 있다. 도영환, 「신화와 상징을 통해 본 노아홍수신화 이해」, 영남신학대학교 석사논문, 2004년, 44-45쪽.

캠벨의 신화 분석은 시공간적으로 서로 연결하기 힘든 「카사블랑카」와 「패왕별희」가 가지고 있는 공통 구조를 보여 준다. 「카사블랑카」와 「패왕별희」의 비교는 경극이 오늘날 가지고 있는 세대교체, 세계화, 미래화 부분에 힌트를 제공해 준다. 오늘날 경극은 중국 정부가 중국의 대표적 예술작품으로 지원하는 장르이다. 캠벨 이론을 통한 경극의 분석은 중국 경극뿐 아니라 동양문화의 세계화와 현대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영화 「미녀와 야수」와 「패왕별희」의 비밀상성

『史記』의 「項羽本紀」로부터 시작한 「패왕별희」는 경극이 있기 전에도 중국 역사에서 다양한 장르의 예술작품으로 수없이 창작되고 공연되어 왔다. 그러나 중국에서도 가장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은 것은 경극 「패왕별희」였다. 경극이 다른 장르보다 「패왕별희」를 감동적으로 전했던 이유는 다른 장르가 흉내 낼 수 없는 경극 검보 특유의 비밀상성이라 할 수 있다.⁴⁷⁾ 비밀상성이 강할수록 영웅 순환이 가지는 의례로서의 특성이 강조된다.

같은 동양에서도 일본의 노오(能)나 경극만큼 비밀상성을 강조하는 장르는 드물다. 캠벨 신화 이론의 핵심이 일상에서 벗어나는 소명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할 때 가장 일상과 동떨어질 수 있는 「패왕별희」는 경극을 통해 영웅 순환의 의례성을 가장 잘 전했다 할 수 있다.

경극은 낯설게하기 수법을 통해 기존 서양 연극형식의 한계를 뛰어 넘고 서양연극으로서의 표현하기 힘든 역사극을 소화해냈다. 「토르」와 같은 할리우드 영화의 경우 그래픽이라는 특수효과를 동원하였지만 경극은 단순한 도구를 통해 한계를 극복한다.

캠벨 신화 이론의 콘텐츠는 실제의 장치를 통해 비밀상으로의 진입이 시작되지

47) 경극은 오늘날 SNS창작물처럼 당시의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재창작되었기에 선형적인 일상을 넘어서는 비선형적 효과로 흥행에 성공할 수 있었다. 전혜정, 『SNS에서의 비선형·다중참여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콘텐츠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2013년, 25-26쪽.

만 경극에서는 간단히 약속된 장치만으로 관객은 비일상성을 자신의 일로 느끼게 된다. 「패왕별희」의 경우 화려한 경극의 검보라는 장치를 통해 전쟁 영웅의 이야기보다는 로맨스 영웅의 환타지 순환으로 느끼게 한다.

경극 「패왕별희」의 경우 비일상성이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영화 「토르」보다는 실제 영화 「미녀와 야수」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 「미녀와 야수」의 경우 야수로 변한 왕자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미녀의 사랑이다.⁴⁸⁾ 「미녀와 야수」에서 야수는 미녀를 위해 진정한 희생을 할 때 미녀의 사랑을 얻어 다시 왕자로 돌아올 수 있었다. 「패왕별희」가 표면적으로는 패왕의 비극 이야기지만 내면적으로는 「미녀와 야수」같은 사랑의 성공 이야기이므로 사람들에게 「패왕별희」는 오래 기억되었다. 어쩌면 현실의 사랑이 「패왕별희」의 사랑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 비일상적인 「패왕별희」를 감동적으로 느끼게 되었을 것이다.

영화 「미녀와 야수」와 「패왕별희」의 비일상성을 순환의 초월적 입체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삼강오륜에서 입체를 상징하는 군신관계 즉 임금과 신하의 입체적 관계가 강조된다. 캠벨의 7캐릭터 중 변신자재자와 트릭스터는 칠성의 무곡, 염정과 같이 주인공에 중립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변화를 주지만 주인공의 순환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다. 임금과 신하같이 입체적으로 중심을 지켜주어야만 소기하는 목적인 순환을 달성할 수 있다. 이 둘의 관계가 이야기의 주요 변곡점이 된다. 「패왕별희」에서 패왕이 믿고 있는 선함에 대한 믿음과 운명에 대한 기대는 트릭스터가 되고, 믿었던 부하는 변신자재자가 된다. 그러나 패왕은 「미녀와 야수」의 주인공처럼 끝까지 하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음으로 자신의 신념을 지켜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신화적 존재가 된다.

48) 「패왕별희」는 우미인을 중심으로 본다면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줄리엣의 영웅스토리가 된다. 박부영,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타난 줄리엣의 영웅성과 희생양 이미지」, 서울시립대학교 석사논문, 2009년, 4-5쪽.

4. 결론

이 글은 경극을 캠벨 신화 이론으로 분석함으로써 경극과 캠벨이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자 한 글이다. 경극과 캠벨이론을 비교해 본 결과 경극과 캠벨은 전형성, 영웅성, 비일상성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 전형성, 영웅성, 비일상성은 우주를 통일된 완성체의 유출로 보는 『주역』의 세계관과 비슷한데, 캠벨 신화 이론과 경극은 이러한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다. 경극과 캠벨 신화 이론에서의 전형성, 영웅성, 비일상성은 불완전한 부분의 합을 통해 영웅 순환이 가지는 효과를 극대화하는 장치들 중 하나이다.

먼저 전형성이라는 측면에서 경극과 캠벨 신화 이론은 영웅 순환의 유형과 배역에서 전형성을 가진다. 먼저 영웅 순환을 보면 캠벨 신화 이론의 경우 장르별 전형과 영웅 유형별 전형이 고정되게 나타난다. 캠벨 신화 이론 영화의 경우 액션 어드벤처, 서부영화, 공포 스릴러 영화, 전쟁 영화, 드라마 영화, 코미디 영화, 판타지 영화 모두 전형이 고정되어 있고 영웅은 상승형과 하강형 둘 중 하나에 고착된다. 그러나 경극의 영웅은 유형별 영웅이 서로 교차된다. 「패왕별희」에서 보듯 경극에서 라이벌은 하늘이다. 경극은 하늘을 트릭스터로 삼기에 캠벨 신화 이론과 같이 단순한 캐릭터가 아니고 매우 복잡한 캐릭터가 된다.

반면 배역의 경우는 반대로 경극이 캠벨보다 더 단순하다. 캠벨 신화 이론은 배역을 복잡하게 함으로써 전형을 다양화하지만 경극은 캐릭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자연과 운명으로 봄으로써 배역을 단순화하는 대신 주인공의 성격을 다양화한다. 경극의 영웅은 하향적 영웅과 상향적 영웅이 하늘에 의해 수시로 교차된다. 영웅의 하강적 순환이라는 「패왕별희」의 전형성은 영화 「토르」의 순환과 대비된다.

다음 영웅성을 보면 캠벨 신화 이론과 경극 모두 주인공이 서민이든 귀족이든 주인공을 영웅으로 간주한다. 다만 해양과 대륙에서 발생한 풍토적 차이로 동서양의 전통이 집단과 개인, 오이디푸스 문제의 해결에서 상반되는 특징을 보인다. 캠벨의 영웅과 경극의 영웅은 문제해결의 방향이 반대인 경우가 많다. 서양 영웅인 오이디푸스는 아버지를 죽이지만 동양 영웅인 역오이디푸스는 자신이나 자식을

죽인다. 서양의 오이디푸스는 개인을 위해 집단을 버리지만 동양의 역오이디푸스는 집단을 위해 자신을 버린다. 「패왕별희」의 패왕은 정의를 위해 이기적 행동을 스스로 포기한다. 「패왕별희」에 나타나는 반오이디푸스적 영웅성은 영화 「카사블랑카」의 영웅성과 교차된다.

다음 비일상성을 보면 영웅의 부름이 비일상애로의 진입이고, 경극의 분장, 연기, 복장이 모두 비일상을 지향하듯 경극과 캠벨 신화 이론 콘텐츠는 비일상을 공통적으로 추구한다. 그러나 경극의 비일상성은 캠벨 신화 이론의 콘텐츠보다 간단한 도구만으로도 비일상애로의 진입이 가능하다. 경극은 또 화려한 분장을 사용하므로 장르자체를 변환시키기도 한다. 「패왕별희」는 영웅이라는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토르」와 같은 신화로 보였으나 사랑이라는 측면에서는 「미녀와 야수」에 나오는 야수형 영웅이야기로 보였다. 군왕의 직위라는 것을 극복하고 연인의 사랑이라는 심연을 얻어내는 「패왕별희」의 비일상성은 영화 「미녀와 야수」에 나오는 비일상성과 대비된다.

경극은 캠벨이론과 공통되는 요소를 많이 가짐에도 캠벨 신화 이론을 적용한 다른 작품과 달리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고 있고, 캠벨 신화 이론의 적용대상에 조차 언급이 안 되었다. 그러나 과거 경극의 인기를 보면 경극은 오늘날 과거의 인기를 되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어쩌면 경극의 부활은 동양 문화 경쟁력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물론 경극을 캠벨의 신화 이론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동양 예술의 미학에 서양 예술의 일관성이 충분히 있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하다. 캠벨 신화 이론은 동양적 세계관에서 출발한 이론이므로 더욱 더 경극의 발전 모델이론으로서 적용이 용이하다. 「패왕별희」의 경우에서 보듯 경극의 비일상성이 캠벨 신화 이론보다 더 장르를 용이하게 넘어서고 확대가 쉽다. 오늘날 경극이 과거와 같은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지만 캠벨이론 콘텐츠가 흥행에 성공하듯 경극 또한 재해석되면 캠벨 신화 이론 콘텐츠보다 더 흥행의 요소를 가질 수 있음을 「패왕별희」는 보여준다.

〈參考文獻〉

- 강진원, 『易으로 보는 동양 천문 이야기』, 서울, 정신세계사, 2006.
- 고신 지음, 안말숙, 윤미영 옮김, 『경극의 이해』, 서울, 박이정, 2008.
- 권미정, 백계, 「경극 패왕별회에 나타난 의상 연구」, 『China연구』 제16집, 2014.
- 김공숙, 「텔레비전 드라마의 영웅서사구조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김만태, 「성수신앙의 일환으로서 북두칠성의 신앙적 화현 양상」, 『동방학지』 제159집, 2012.
- 김미림, 「삶의 여정을 통한 만화 히어로 성장유형 연구」, 『만화에니메이션연구』 제29집, 2012.
- 김영미, 「브레히트의 중국 전통극 '경극' 수용에 대한 비교고찰」, 『중국학연구』 제36집, 2006.
- 김영숙, 「영화 「패왕별회」 서사의 다층적 은유」, 『중국어문학논집』 제38집, 2006.
- 김영희, 『한국 구전서사의 부친살해』, 서울, 월인, 2013.
- 김유석, 『이청준 소설 연구 - 의식의 분열에서 신화적 통합으로』, 중앙대학교 박사논문, 2013.
- 김현자, 「캠벨의 신화론」, 『종교와 문화』 제6집, 2000.
- 노해선, 「영웅 서사를 바탕으로 한 MMORPG에서의 서사 방법 연구」, 상명대학교 디지털 미디어대학원 석사논문, 2008.
- 도영환, 「신화와 상징을 통해 본 노아홍수신화 이해」, 영남신학대학교 석사논문, 2004.
- 동운, 「애니메이션을 통한 중국 경극의 예술성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리처드 니스벳 저, 최인철 역, 『생각의 지도』, 서울: 김영사, 2004.
- 모로하시 데쓰지 저, 최수빈 역, 『십이지 이야기』, 서울: 바오, 2008.
- 변민주, 「콘텐츠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스토리텔링」, 『마케팅』 제45권 제5집, 2011.
- 박기수, 「『모노노케 히메』의 스토리텔링 전략 연구」, 『인문콘텐츠』 제17집, 2010.
- 박병원, 「시가, 경극, 무협 -중국영화 속의 시의와 국가상상」, 『중국학논총』 제19집, 2006.
- 박부영,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타난 줄리엣의 영웅성과 희생양 이미지」, 서울시립대학교 석사논문, 2009.
- 박정희, 「예광친의 『차이상즈』와 베이징」, 『동북아문화연구』 제36집, 2013.
- 송철규, 『경극』, 경기, 살림, 2004.
- 쉬청베이 지음, 최지선 옮김, 『경극』, 경기, 대가, 2008.

- 심재관, 「Krttika와 칠성현(七聖賢), 그리고 아그니-베다 문헌의 별자리 신화소에 대한 한 분석」, 『인도철학』 제14집, 2003.
- S. 보이탈라 저, 김경식 역, 『영화와 신화』, 서울, 을유문화사, 2005.
- 안종수, 「괴테와 중국철학」, 『철학연구』 제69집, 2012.
- 오현진, 「紫微斗數 研究 - 成立 背景과 理論의 土臺를 中心으로 -」, 공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
- 이광복, 「경극의 연기예술에 대한 고찰 - 정식화와 허의화를 중심으로 -」, 『연기예술연구』 제2집, 2010.
- 이세동, 「주역의 문학이론 - 문(文)·도(道) 관계론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 제30집, 1997.
- 이현중, 「『서경』의 역학적 이해」, 『동서철학연구』 제35집, 2005.
- 임운주, 『한·미·일 장편 애니메이션 주인공에서 나타난 영웅 속성 비교연구』, 홍익대학교 박사논문, 2011.
- 임현수, 「조셉 캠벨의 신화 읽기: 참된 자아를 향한 여정 - 『신화의 세계』(과학세대 옮김, 까치글방)에 대한 서평 -」, 『종교문화연구』 제17집, 1999.
- 전혜정, 『SNS에서의 비선형·다중참여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콘텐츠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2013.
- 정재서, 『양띠 오이디푸스의 신화학』, 경기, 창비, 2010.
- 조미라, 「조셉 캠벨(Joseph Campbell)의 신화적 관점에서 본 요한복음」, 『연세상담코칭 연구』 제3집,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2015.
- 조성두, 「수운 최제우와 홍암 나철의 영웅신화적 요소에 대한 비교연구」, 『신종교연구』 제31집, 2014.
- 정선경 외, 「韓國에서의 中國古典劇 研究 現況 및 成果」, 『중국어문학논집』 제68집, 2011.
- 정운채, 「인간관계의 발달 과정에 따른 기초서사의 네 영역과 〈구운몽〉 분석 시론」, 『문학치료연구』 제3집, 2005.
- J. 캠벨 저, 이윤기 역,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서울, 민음사, 2007.
- _____, 노혜숙 역, 『블리스 내 인생의 신화를 찾아서』, 경기, 아니마, 2014.
- _____, 홍윤희 역, 『신화의 이미지』, 경기, 살림, 2005.
- _____, 이윤기 역, 『신화의 힘』, 서울, 고려원, 1992.
- _____, 이진구 역, 『신의 가면 1』, 서울, 까치, 2003.
- 차미경, 「『사기·향우본기』에서 경극 「패왕별희」까지」, 『중국문화연구』 제23집, 2013.
- _____, 「사랑이여 안녕(霸王別姬) 해제와 번역」, 『중국어논문역총간』 제18집, 2006.

- 최민성, 「신화의 구조와 스토리텔링 모델」, 『국제어문』 제42집, 2008.
- 최병현, 「공연의 강도(Intensity of Performance)로 바라본 경극(京劇)의 미학적 특징 연구 - 경극 석수탐장(石秀探莊)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최영진, 『역학사상의 철학적 탐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 최영진, 『동양과 서양』, 지식산업사, 1994.
- 최원혁, 「영화 〈토르〉와 〈쿵푸팬더2〉에 나타난 서사발생지점에 대한 연구」, 『문학치료연구』 제25집, 2012.
- 크리스토퍼 보글러 저, 함춘성 역, 『신화 영웅 그리고 시나리오 쓰기』, 서울, 비즈앤비즈, 2013.
- 하경심, 「중국영화 속 전통극의 향연 - 〈刀馬旦〉, 〈人·鬼·情〉, 〈霸王別姬〉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제76집, 2012.
- 허은숙, 「중국 경극공연의 관객개발 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Abstract〉

A Study on Beijing Opera from the Viewpoint of Joseph Cambell's Myth Theory Focused on 'Farewell My Concubine'

Beijing Opera and Joseph Campbell's diagram of a heroic myth can be called the world's two largest code of the current Culture Industry.

A Study on Beijing Opera from the viewpoint of Joseph Campbell's diagram of a heroic myth focuses on contents of Beijing Opera differently from existing study which focused on forms of Beijing Opera so it is crucial for Beijing Opera resurrection.

Joseph Campbell's myth theory came from theory of C. G Jung which came from the pattern of Orient thinking method, so theory comparison of the Beijing Opera generative theory and Joseph Campbell's myth theory and is not so difficult.

A brief comparison shows the commons of two circulation theory can be typicality, heroism and characteristics of Non-dailiness.

Typicality, heroism and characteristics of Non-dailiness opposed to each other but can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symmetry of Heroes circulation. In this process, the

role of heroism is to harmonize the universality of typicality and the discriminability of Non-dailiness.

Circulation composed of three factors. The first is verticality to causing the first separation, the second is the horizontality to maintain the verticality, and the third is the transcendental solidity to continue the verticality and horizontality.

Samgang (Three Bonds) and Oryun (Five Interpersonal Relations), Ethical system representative of the East can be also regarded circulation with verticality, horizontality and solidity.

Typically Chinese Zodiac Sign and Joseph Campbell's monomyth have 12 level of circulation and 7 characters who backup circulation in commons.

Heroically characters of Beijing Opera and Joseph Campbell's myth performs in works. Beijing Opera and the works based on Joseph Campbell's myth gave the impression using the method of Brecht's 'Defamiliarization'

The famous Beijing Opera 'Farewell My Concubine' can be compared to works 'Thor', 'Casablanca', and 'Beauty and the Beast' all of which came from Joseph Campbell's myth theory.

The analysis of Beijing opera shows the impression Beijing opera gave came from not only the beauty of form but also harmonization of plot and this can be crucial for resurrection of Beijing opera.

Key Words: Beijing Opera, Joseph Cambell, myth theory, Farewell My Concubine, comparison

이 논문은 2015년 10월 10일에 접수되어 2015년 11월 10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5년 11월 1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